
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	보도자료			
2018년 12월 18일(화) 11:4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배포일시	2018. 12. 17 (월)		담당부서	자동차항공과	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종원 과장 (044-203-4320)		담당자	위승복 서기관 (044-203-4327) 박일철 사무관 (044-203-4321)	
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상윤 과장 (044-215-4530)			손선영 사무관 (044-215-4531)	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장 (02-2100-2860)			김종식 사무관 (02-2100-2865)	
	환경부 대기환경과 박류민 과장 (044-201-6880)			안중기 사무관 (044-201-6881)	
	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재평 과장 (044-201-3847)			조태영 사무관 (044-201-3850)	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 (042-481-4545)			윤성용 사무관 (042-481-4382)	
	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제도과 서정훈 (02-2100-3626)			장지원 사무관 (02-2100-3652)	

「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」 발표

- ▷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**3.5조원 + α 자금 지원**
- ▷ **개소세 감면 연장, 노후차 교체**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 일감확보 지원
- ▷ '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**현 1.5%에서 10% 이상**으로 확대,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**전기차 43만대**(18년 5.6만대), **수소차 6.5만대**(18년 923대)로 확대 (당초목표 35만대) (당초목표 1.5만대)
- ▷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**미래차 핵심기술 R&D 2조원** 투자
- ▷ **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육성** 등 중소·중견기업의 **미래차 시장진입** 지원

- 정부는 **산업부 업무보고**(12.18) 계기,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, 관계부처 합동 「**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**」을 발표
- 그간 정부는 지역별 **부품업계 현장 간담회**(8~10월), **자동차산업발전 위원회**(18.11월),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, 이를 바탕으로 「**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**」을 마련

- 1 -

1. 활력제고 방안 수립의 주안점

◇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**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**하고,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**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**에 역점

중소·중견 부품기업 지원 보완·확대

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

-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, 부품기업들은 만기 연장 등 **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**
- ⇒ 이에 **정부·지자체·완성차 공동출연금**을 활용, 기업들의 **장기 운영·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**을 마련(1조원)하여 **자금조달 경로를 확대**하고,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**중견기업**도 지원 가능
- ⇒ 이와 함께 **GM 협력사·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**들에 대해 만기연장 지원
- ⇒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**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** 개편도 추진

② 부품기업의 일감확보 지원

- 최근 완성차 생산량 급감으로 부품기업은 일감부족·경영악화 호소
- ⇒ 지원이 제한적인 금융·R&D 등 직접지원 외, **개소세 감면 등 수요 진작**을 통해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**생태계 전반의 활력** 도모

③ 민·관 상생협력 체계

- 국내 완성차별로 **용자 중심의 개별적인 상생활동**을 추진
- ⇒ 현재 부품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**완성차사가 정부·지자체 지원 프로그램**(유동성 지원 등)에 공동 참여하는 체계 구축

- 2 -

□ **우리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 유도**

① **2·3차 협력업체**

- 공급사슬 **끝단**에 위치한 2·3차 협력사를 금융·상생협력·기술 개발 등 **모든 지원 정책의 중심**이 되도록 방안 수립

② **부품업체의 대형화·전문화**

- 부품기업들은 **영세성·저수익 구조로 R&D 등 혁신 투자여력 고갈**
- ⇒ 부품기업들의 **대형화·전문화**를 위하여 **사업재편 제도·시장 자금** 등을 본격적으로 활용

③ **중소·중견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입**

- 우리 자동차산업은 **Player 다양성·시장역동성**이 낮은, **완성차 중심의 폐쇄적** 구조 (* 글로벌 미래차 시장은 IT기업 참여, 완성차-IT기업 제휴 등 경쟁구도 변화)
- ⇒ **중소·중견기업이 위탁생산·직접판매**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차 시장에 진입하여 **New Player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

□ **친환경차 선도국으로 비전 제시**

① **'22년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 10% : 글로벌 수준*(5%)의 2배**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 (* '22년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비중은 약 5%로 전망)

- **규모의 경제** 조기 달성 + **初期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**를 통하여 글로벌 **친환경차 시장**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
-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**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** 가능한 발판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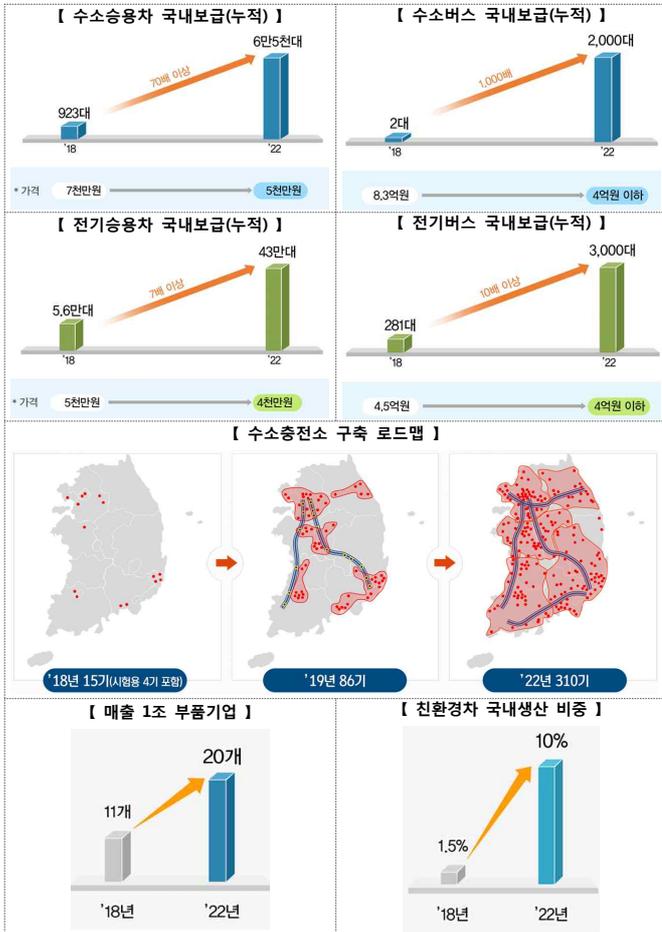
② **친환경차 사용 확대**

- 규모의 경제 달성효과 등으로 '22년경 **전기차 가격(보조금 지급前)**은 **5→4천만원**으로, **수소차는 7→5천만원**으로 인하 가능 전망
* 대당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
- 미세먼지 **감축효과**는 **現 38톤 → '22년 829톤**으로 **확대** 전망
- 팽창하는 수요·공급을 뒷받침하여 **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전**이 가능하도록 **인프라 구축 로드맵** 제시

【 「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」 주요골자 】

<p>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</p> <p>① 경쟁력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: 3.5조원+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지자체·완성차 공동출연 신규자금: 1조원 ▶ 산기보 보증 프로그램: 1조원(지원 8) / 긴급경영안정자금: 1천억원(자동차 부품기업 우선 지원, 소진시 1천억원 추가) ▶ GM협력업체 대출·보증 만기연장: 1.2조원 ▶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: 2천억원 / 산업위aggi지역內 부품기업 만기연장: 630억원 <p>② 환경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新車 개소세 30% 감면 연장(18.말→19.상) / 노후경유차 등록말소後 신차 개소세 70% 감면(19) ▶ '19년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(전기차 '18년 2.65→'19년 4.2만대, 수소차 746대→4천대) <p>③ 상생노력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협력이익공유형 R&D 신규도입 추진 / 완성차-협력사간 결제조건 공시의무 부과 추진 (하도급법 개정 추진) ▶ 노사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
<p>② 대형화·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</p> <p>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(10조원), 기업구조 혁신펀드(1조원) 등을 활용하여 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</p> <p>② 글로벌 부품시장 개척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출단계별 서비스 제공, 중소기업 해외 사무소 확대 등 글로벌화 지원 <p>③ 부품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年 10개사 이상 기업활력법 지원 등 사업재편 과정 밀착 지원 <p>④ 부품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'22년까지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</p>
<p>③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</p> <p>① 친환경차 국내생산비중 10% 달성 및 국내 보급목표 대폭상향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급목표: 전기차: '18년 5.6→'22년 43만대(7배↑) / 수소차: '18년 923대→'22년 6.5만대(70배↑) (당초목표 35만대) (당초목표 1.5만대) 수소버스: '18년 2대→'22년 2천대(1,000배↑) (당초목표 1천대) <p>②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: '18년 70% → '20년 100% ▶ 수소차 충전소: '18년 15개소 → '19년 80여개소 → '22년 310개소(20배) ▶ 전기차 충전소: '18년 약 3,800기 → '22년 1만기 <p>③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 투자, 中小·中堅 미래차 시장진입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, 전기버스 전문기업 등 New Player 육성 ▶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지원 등 中小·中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·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

< 친환경차 보급목표 및 주요전망 >



2. 활력제고 방안 주요내용

(1) 부품기업들에게 유동성,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

☐ **(자금지원)**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·대출 만기연장 등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함

【 신규 자금공급 】

- ① **(장기자금)** 정부·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하여,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 (P-CBO 방식)
 * 중소기업에 150억원,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
 - 중견기업도 지원가능,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하여 자금조달 문턱을 낮춤
- ② **(긴급자금)** 2·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(1천억원)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배정, 소진시에는 1천억원 추가 투입 (중진공)
 * (현재) 세금체납 등은 지원제한 → (개선) 자동차부품 제외
- ③ **(보증지원)**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 중 (신용보증기금 7천억원, 기술보증기금 3천억원)

【 만기 연장 등 】

- ① **(한국GM 협력업체)** 현재 운영 중인 1.2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·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
- ② **(무역보증)** 2천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(무보)
- ③ **(산업위기지역)**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·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됨

* [전북] 군산, [경남] 거제, 통영·고성, 창원 진해구, [전남] 목포·영암·해남, [울산] 동구

【 정책금융기관 면책 등 】

-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**담당자 면책** 추진
-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**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** 추진
- ② **(부품업계 일감확보) 개소세 감면 연장·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**를 통하여 부품기업들의 **일감 확보**를 지원할 예정임
- ① **(개소세)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% 감면(5%→3.5%)** 기간 (18.7.19-12.31)을 '19년 상반기까지로 **6개월 연장**함
- ② **(노후 경유차)** 10년 이상된 **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, 신규 승용차를 구매**할 경우 '19년(1.1 ~ 12.31) **개별소비세 70% 감면** (既 발표)
 - * '18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
- ③ **(친환경차)** '19년 전기차·수소차 **보조금 예산**을 대폭 확대하여, 전기차 **4만 2천대, 수소차 4천대**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
 - * 전기차 보급 예산(천대) : ('18) 26.5 → ('19) 42 / * 수소차 보급 예산(대) : ('18) 746 → ('19) 4,000
- ④ **(교통약자 지원) 첨단 안전부품(간접제동장치·차선유지장치) 수요창출** 방안도 검토
- ③ **(상생노력 강화) 새로운 상생모델 도입과 공정거래 지원제도 정비**를 추진하고, 완성차 기업의 **상생활동도 강화**해 나갈 계획임
- **(협력이익공유)** 정부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기업·수탁기업이 참여하는 **협력이익공유형* R&D 신규도입**을 추진
 - *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'사전계약 체결 → 공동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창출된 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
- **(결제조건)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(현금, 상생결제, 어음 등) 공시 의무**를 부과하도록 **하도급법 개정**도 추진함
 - 대금 지급기일·방식 등을 공표하여, 2·3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
- **(노사관계 연구회)** 노·사·정 등이 함께 산업경쟁력·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영향 등을 연구하고, 업계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

- 7 -

(2)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·글로벌화하여,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 지원

- ① **(대형화·전문화)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***(3년간 10조원), **기업구조 혁신펀드†**(1조원)를 활용하여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임 * 초 주력업종 활용 가능
- ② **(글로벌화)**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**글로벌 완성차사**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**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**할 예정
- ① 「**해의 바이어 연계(코트라) → R&D·인증(산업부 등) → 투자·무역보험 지원(산은, 무보)**」의 **단계별 서비스** 제공
- ② 中·美 등 해외 수출거점의 **중소 부품기업 지원**을 위한 **공동사무소 확대**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
 - * KOTRA 무역관에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제공, 현지 전담직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③ **신남방(베트남·인니 등) 등 신흥국 시장**에 대하여 **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** 등을 활용, **글로벌 진출도 확대**해 나갈 계획
- ④ 부품기업들이 **GM·르노 등 완성차 글로벌 네트워크**를 활용하여 **납품 확대**
- ③ **(사업재편 지원) 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**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
- ① 사업재편·사업정리 과정에서 **법률·금융·M&A 자문** 등을 **밀착** 지원하기 위하여 **부품사업 재편 지원단** 운영 검토
- ② 「**기업활력법**」 활용, **향후 年 10개사 이상 부품기업**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
- ③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·폐업시 **공장부지·기계설비도 신속·공정**하게 **매각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
 - * 산단 중심으로 부지매입 지원('19년 400억원 산단공), 기계거래소는 중고기계 경매·수출 대행
- ④ **퇴직자 재취업**(19년 800여명), **전환교육 실시**(1,300여명) 등 부품기업의 **퇴직인력 안전망**도 운영 ('19년 206억원)

- 8 -

④ (생산성 향상) 부품기업 현장의 공정기술, 부품 고도화 등을 지원

- 산은·기은 대출지원을 통해 '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천개사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(年 500개사 지원)
- 내연기관 부품 고부가가치화, 수주 연계 기술개발 등도 지원(19년 1,053억원)

(3)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

① (국내 年생산) 친환경차 年 국내생산 비중*을 현재 1.5% 수준에서 '22년 10% 이상으로 확대 (* 연간 친환경차 생산대수/연간 전체 생산대수)

-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年 3만 6천대 → '22년 25만대로(7배), 수소차는 현재 300대 → '22년 5천대(17배) 이상으로 확대 기대

② (국내 누적보급)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(18.6 발표)를 대폭 상향하여 전기차 '18년 5.6만대 → '22년 43만대, 수소차 '18년 923대 → '22년 6.5만대로 확대 (당초목표 35만대) (당초목표 1.5만대)

- ① 또한,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現 70%에서 100%로 상향(20년)
- 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로 '22년까지 2천대(누적)를 보급
- ③ 이와 함께 전경버스로 개발·실증(19~20)을 거쳐, '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임
- ④ 수소택시는 '19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
- ⑤ 친환경차 생산 전환·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지원

③ (충전인프라)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

- (수소차 충전소) 現 15개소 → '19년 80여개소(주요권역·교통망) → '22년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 예정

- 9 -

-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·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설치하고,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SPC(19년 초)가 이 중 100개를 구축

-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도심지,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,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

-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특례·임시허가(산업융합촉진법) 등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예정

- (전기차 충전소) 현재 3,800기 수준을 '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

⇒ (기대효과) 생산확대 +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'22년 전기차는 (보조금 지급전) 5 → 4천만원, 수소차는 7 → 5천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
-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'22년 829톤(20배 이상)으로 확대가 기대됨

④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,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·중견기업 지원 R&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임

【 미래차 기술개발 주요내용 】

-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(400 → 600km), 충전시간 저감(200 → 400kW)과 함께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추진 (5천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)
- 수소차는 16만 km인 내구성을 50만 km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 (3천억원 규모 예타 중)
- 자율주행차에는 1조원을 투입, 부품기업들이 전자·통신·I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('19.1분기 예타 추진 예정)
- 미래차 개발의 핵심인 고급인력 공급을 위하여 '22년까지 석·박사급 전문 인력 1천명 이상 양성

④ **중소·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확대를 지원**

① **(제조전문 위탁생산)** 중소·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, **재정·금융·기술개발**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

* 고용지원금,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지원 (19년 지원기준 개정)

② **(전기버스)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·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「지자체-민간펀드-버스업체 간 협업모델」**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 확산

【 전기버스 선도 프로젝트(안) 】

- **(지자체) 여객운수회사(버스 운영)가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규모 교체**도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
* S시 사례 : 1천대 전기버스 도입(19~22) 등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계획 수립
 - **(민간투자자) 운수회사에 구매자금 지원** (초기 구매비용 부담 완화)
 - **(정부) 지자체로 구매보조금 배정, 전기버스 충전요금 할인, 전기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** 등을 지원
- ⇒ **(전기버스 제조회사)** 대규모 물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가격 인하와 일감확보,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 가능

③ **(전기차) 중소·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 개발·판매할 수 있도록, R&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·공개**(19~21, 340억원)하고,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

※ 별첨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위승복 서기관 (☎ 044-203-4327), 박일철 사무관 (☎ 044-203-43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1 「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」



대책마련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

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 <p>"만기연장과 신규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망"</p>	→	유동성 위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
 <p>"일감 부족으로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"</p>	→	내수진작을 통한 단기일감 창출 필요
 <p>"미래차 생산시설에 투자했으나 물량 부족으로 투자비 회수도 곤란"</p>	→	친환경차 생산 획기적 확대

※ 지역별 부품업체 간담회(9~10월), 자동차 산업 발전위원회(11월) 등

이를 바탕으로 부품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

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목표
(22년)

- 매출 1조 글로벌 부품기업 : '18년 11개 → '22년 20개
- 친환경차 생산비중 10% 이상 달성 ('18년 1.5%)
-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 유지

3대 정책과제

부품 산업생태계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동성 지원 확대 내수확대 등 일감창출 상생노력 강화 	근본적 체질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형화 글로벌화 사업재편 지원 생산성 향상 	미래차 산업전환 가속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친환경차 생산 획기적 확대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중소·중견의 미래차 진입지원
--	--	--

1.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

2. 근본적 체질 개선

3. 미래차 생태계 가속화

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

신규 투자·운영자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자금 1조원 (신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·지자체·민생차 공동출연(9-CDO) 보통저축 1조원 (신·기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 부품업체 대상 보증지원 긴급 운영안정자금 1천억 + α (중진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 부품업종 지원요건 완화 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border-radius: 50%; width: 60px; height: 6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0 auto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총 3.5조원 + α</p> </div> </div>	기존자금 만기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GM협력업체 1.2조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출·보증만기 1년 추가연장 무역보증 2천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보증 만기연장,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산업위기지역 680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대출·보증만기 연장
--	--	---

정책금융 기관

-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고의·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
- 국책은행 경영평가: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

1.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

2. 근본적 체질 개선

3. 미래차 생태계 가속화

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내수확대를 통해 업계의 일감확보를 지원 하겠습니다

개소세 감면·친환경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소세 감면·경유차 교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용차 신차구매 개소세 감면(30%)기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8년말 → '19.12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(70%) 중대형(2톤이상)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액 770만원 → 최대 3천만원 친환경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9년 전기·수소차 보급규모를 대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차 보급(천대) : '18 265 → '19 42 수소차 보급(천대) : '18 0.7 → '19 4 친환경차 구매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연장('18 → '2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소차 구매시 최대 76만원 부담완화 	경소형 상용차 생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LPG 상용차 생산 연장 소상공인 수요충족, 친환경차 일자리 유지
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효과	첨단 안전부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상제동장치, 차선유지장치 등 정착 시 지원방안검토 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

1.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2. 근본적 체질 개선 3. 미래차 생태계 가속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부품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하였습니다

<h4>강소부품기업 육성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&A 등 대화 지원 고부가가치화·전문화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펀드(10조원), 기업구조혁신펀드(1조원) 등 활용 	<h4>글로벌 부품시장 개척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만료 R&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OTRA Global Partnering, 무역사 해외 공동사무소 확대 등 완성차(GM, 르노 등)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GM 우수협력사 125개사중 한국업체는 27개사
<h4>생산성 향상·기술고도화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 공장 2천개 보급 (~'22) 스마트 산단 구축 (자동차 부품 밀집지역) 내연기관 부품 고부가가치화 등 	<h4>사업재편·전환 지원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활력제고법 일몰연장 및 사업재편 기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재편지원단 운영 기업구조조정축진법으로 신속한 워크아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동산·기계설비 매각 지원, 퇴직연금 교육 및 재취업 지원

1.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2. 근본적 체질 개선 3. 미래차 생태계 가속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

수소충전소

'61년 15기
* 핵심도시 중심

'19년 86기
* 5개광역 68기, 경부고속도로 18기

'22년 310기
* 5개광역 150기, 주요고속도로 160기

규제애스

도시차·이동식 충전소 허용, 셀프충전도 적극 검토중

▶ 규제 샌드박스로 서울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

전기충전소

▶ 매년 1,500기씩 '22년 1만기 구축

1.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2. 근본적 체질 개선 3. 미래차 생태계 가속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미래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

<h4>전기차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행거리: 600km 이상 충전속도: 2배 이상 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출 25만대 (매 연 3만대) ▶ 선진국 대비 100% 기술 확보 	<h4>수소차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구성: 50만 km 충진기술 국산화 80%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세계시장 점유율 30% ▶ 세계최고수준 기술 유지 	<h4>자율주행차</h4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대 핵심부품 국산화 자율주행용 인공지능(AI) 개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 (관계부처 합동, '19.10) ▶ 레벨 3~4(부분·완전 자율주행) 기술개발
--	--	---

※ '19년의 경우 미래차 개발 등에 약 2천억원 투자 예정

▶ 석·박사급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: '19년 160명 → '20년 220명

1.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2. 근본적 체질 개선 3. 미래차 생태계 가속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재고 방안

새로운 중소·중견 기업이 미래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

자동차 위탁생산 공장

- 부품기업의 전기차 시장진입 지원: 트위지
 - 르노삼성-동신모텍 MOU (R&D)
- 대기 프로젝트: 광주형 일자리 등

민간투자 활용 대규모 전기버스 전환

- 민간투자를 활용한 대규모 발주 (SAI 운수회사)
 - ▶ 대량생산으로 가격인하·품질향상 (버스 제작사)
 - ▶ 지역내 생산 증가, 일자리 창출

중소·중견기업 전기차 산업진입 지원

-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, 핵심모듈 모듈화·공동화